여수, 세계섬박람회 외국인 관람객 몰려

하와이·일본·대만 등 해외 방문단과 외국인 관광객 발길 이어져

31일 박람회장에는 하와이와 일본, 대만, 미국, 영국 등에서 온 외국인 방문객들이 잇따라 찾아와 세계 첫 섬박람회를 즐겼다.

바다 건너 하와이에서는 방문단과 공연팀이 함께 박람회장을 찾았다. 하와이 방문단은 박람회장을 둘러봤고, 이날 저녁 열린 '아일랜드 프렌즈데이'에서는 하와이에서 직접 건너온 공연팀이 하와이의 전통 춤과 음악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일본과 대만, 미국, 영국 등에서 온 외국인 인플루언서 60명을 포함한 외국인 참가자 95명도 이날 박람회장을 찾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남해안 섬 관광을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섬이술술(sum&sip)'캠페인 참가자들로, 낮에는 낭도의 주조장과 섬마을을 둘러보고 저녁에는 여수시 관광해설사의 안내로 박람회장 전시관을 관람했다. 이들이 담아 간 섬박람회와 여수 섬의 모습은 각자의 SNS를 통해 세계 곳곳에 전해질 예정이다.

외국인 관람객들은 여수 낭도의 전통 변장 축제를 되살린'아일랜드 카니발'에도 함께했다. 낭도 카니발 가면과 분장 의상을 입고 사진을 남기며, 50여 년 전 섬마을 사람들이 즐기던 축제를 직접 체험했다.

이처럼, 섬박람회 폐막을 앞두고 박람회장을 찾는 해외 손님들의 발길은 지난주부터 이어졌다. 27일에는 후세인 알리 음위니 탄자니아 잔지바르 대통령 등 대표단이, 28일에는 하마다 세이지 일본 고치현 지사 등 대표단이 박람회장을 찾았다.

29일과 30일에는 미국과 중국의 대형 크루즈가 잇따라 여수에 입항해 크루즈 관광객과 승무원들이 박람회장을 관람했다.

섬은 기후위기를 가장 먼저 겪는 곳이자, 그 해법을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다. 세계 첫 섬박람회는 섬의 가치와 미래를 세계와 함께 묻기 위해 시작됐다.

바다 건너 찾아온 외국인 관람객들의 발걸음은 섬의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 세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61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11월 4일 폐막까지, 섬박람회장은 세계의 섬과 사람들이 만나는 무대로 마지막 순간을 채워 간다.

여수시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해외 방문단과 관광객들에게 여수 섬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제적인 섬 관광 교류 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촬영한 콘텐츠가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여수의 글로벌 관광 홍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유빈 기자



하와이 공연팀이 전통 춤과 음악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여수 시청 제공

순천, 제6회 주민자치박람회 성료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지난 29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24개 읍면동 주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순천자치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 새 시대, 순천이 앞장섭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주민이 마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온 성과를 나누는 자리다. 읍면동별 활동 전시와 시상, 프로그램 경연 등을 통해 한 해의 노력을 돌아보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다.

개회식에서는 24개 읍면동 대표가 꽃 피켓을 들고 참석자들과 함께 행사 슬로건을 펼쳤다. 마을마다 이어 온 주민들의 참여와 실천을 꽃으로 표현하며 행사의 문을 열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는 송광면 '소리나장구난타'와 승주읍 '라사모' 등이 입상했다. 수강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무대마다 객석의 박수가 이어졌다. /이유빈 기자

광양시, 빅데이터 기반 옥외광고물 관리 혁신 나선다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옥외광고물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 운영 실적과 안전관리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8종 119개소, 161기 733면과 옥외광고물(간판) 5,497건을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옥외광고물 시설물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시설물 이용 실적과 사용료·수수료 정산, 설치 위치의 적정성, 안전도 검사 등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시설물별 관리 카드를 정비하고 이용 실적과 사용료·수수료 정산 내역, 시설물 신설·개보수 이력 등을 기록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현수막 단속과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개선하고,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이력도 정비한다.

특히 주말과 휴일에 집중적으로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2026년 10월 광고번호 차단 자동경고 발신시스템(AWCS)을 구축·운영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에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사 대상과 시기를 확인해 누락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는 이번 개선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설물 유지관리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현수막 근절과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압록 참게·은어거리 민관 협력으로 환경 개선

곡성군보건의료원과 압록 참게·은어거리 상인회가 지역 대표 음식 거리의 환경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압록 참게·은어거리 상인회 소속 11개 업소 영업주들은 지난 10월 29일 거리 내 공원과 주변 일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등 자발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상인회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거리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수년째 자발적인 청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상인들이 직접 거리 환경을 가꾸며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활동은 3년 전 곡성군보건의료원 위생팀과 상인회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행정과 상인회가 함께 거리 환경 개선에 힘을 모으며 '깨끗한 곡성, 맛있는 곡성'이라는 지역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한 음식점 대표는 "군에서 거리 홍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만큼, 상인들도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방문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참게·은어거리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상인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압록 참게·은어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일규 기자

구례군, 정신건강의 날 기념 걷기 행사 성료

구례군은 지난 29일 서시천 체육공원에서 정신건강의 날 기념 걷기 행사 '마음 마주하기, 함께 걷는 길'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브랜드 '마주해요'를 주제로 주민들이 가족, 이웃과 함께 걸으며 마음돌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정신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장 산책로에는 '마·주·해·요'를 주제로 한 4개 체험 부스가 설치됐으며, 참가자들은 스탬프 투어를 통해 마음돌봄 실천 다짐서 작성과 정신건강 OX퀴즈, 슬로건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각 부스 체험을 마칠 때마다 도장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해 걷기를 즐기면서 마음돌봄 수칙과 정신건강 정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했다. 구례군 보건의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번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주민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많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정신건강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촘촘한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걷기와 체험을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신건강 인식을 개선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적절한 상담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심선섭 기자

